

# 현대 러시아어의 지시표현 연구

김명자\*

## 1. 들어가는 말

대명사나 고유명사, 일반명사는 정체확인 단어(идентифицирующие слова)로서 그 지시의미, 특히 한정성이나 주어집성(givenness)에 준해 많이 논의된 바 있다.(Halliday, 1967; Chafe, 1976; Prince, 1979 / 1981; Gundel, Hedberg & Zacharski(이하 G. H. Z.), 1993)<sup>1)</sup> 이러한 지시의미와 관련하여 G. H. Z.는 '주어집성의 위계'에 상응하는 지시표현의 위계를 설정하고, Ariel(1988 / 1996)은 '접근의 용이성(accessibility)'에 준해 다양한 지시표현들을 특성화한다.

G. H. Z.(1993)는 해당 지시체의 인지상태(cognitive status)에 준해 함의관계에 있는 주어집성의 다양한 층위를 설정하고 특정 층위의 주어집성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시표현을 지정하여 지시표현들 간의 관계 역시 함의관계로 설정한 바 있다. G. H. Z.의 '주어집성의 위계'는 지시표현의 차별성을 지시의미에 준해 밝힘으로써 특정 맥락에서 특정 대응사 형태를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각기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up>2)</sup> 그러나 G. H. Z.(1993: 284)의 도표에서 보듯이 러시아어의 경우에 '주어집성의 위계'와 해당 지시표현은 영어에서처럼 일대일 대응관계를 이루지 않

\*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강사.

- 1) 단어는 정체확인 단어와 술어적인 단어(предикативные слова)로 양분되고 정체확인 단어에는 대명사나 일반명사, 고유명사가 포함된다.(Арутюнова, 1998: 2) 본문에서 지시(reference)는 외연(denotation)과 구분되어 사용되는데 지시란 발화의존적이라는 점에서 외연과 구분된다.(Lyons, 1977: 176) 한정성은 본고에서 G. H. Z.(1993)의 '주어집성의 위계(givenness hierarchy)'의 여러 층위 중에서 유일 정체확인가능성을 의미한다.
- 2) 본 논문에서 대응사란 Channon(1983)에 따라 선행하는, 혹은 이전에 소개된 적이 있는 단어나 단어군을 지시하는 문법적 대체물을 일컫는다.

는다.<sup>3)</sup> 왜냐하면 러시아어에는 관사가 없기 때문에 유일 정체확인가능성이나 지시성 및 유형 정체확인가능성은 그 지시표현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사구 그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유일 정체확인가능성]인지 알 수 없고, 대신 해당 명사구의 어순이나 억양, 구절 강세를 통해서 그 여부를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러시아어는 명확한 문법적인 정보가 영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화용론적인 추론에 대한 청자의 부담이 크다. (Chesterman, 1991: 7.3.3.) 아울러 G. H. Z의 '주어집성의 위계'는 지시의미 뿐만 아니라 그 지시표현들 간에도 함의관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주어집성의 위계'의 층위가 높을수록 지시표현의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 특히 지시체의 인지상태가 [+초점]인 경우는 G. H. Z(1993: 292)에 따르면  $\emptyset$ , 비강세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 명사, 명사구가 그 지시표현으로 예상되고 [+초점]의 지시표현으로 선호되는 것은 비강세 인칭대명사, 명사구,  $\emptyset$ , 지시대명사나 지시대명사 + 명사의 순으로 나타난다.<sup>4)</sup> 이는 결국 주어진 맥락에서 특정 지시표현이 선호되는 경향에 대해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지만 실제로 G. H. Z.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Ariel(1996)의 '접근의 용이성' 이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출발한다.

청자는 특정 표현에 의해 그에게 지시된 바대로의 '접근의 용이성'을 갖는 개체를 마음속의 표상에서 찾아야 하고, 화자는 청자를 위해 그 개체의 '접근의 용이성'의 등급을 감안하여 그 지시표현을 선택한다.(Ariel, 1996: 20)

### 3) «주어집성의 위계»

초점	>	활성화	>	친숙함	>	유일 정체확인 가능성	>	지시성	>	유형 정체확인 가능성
in focus		activated		familiar		uniquely identifiable		referential		type identifiable
( $\emptyset$ , он)		(он, это/то)		(этот/той)		(명사구)				

(단 여기서 он은 비강세 인칭대명사를, он은 강세하의 인칭대명사를 나타낸다.)  
(G. H. Z., 1993: 284)

- 4) 본문에서 초점은 순수하게 관심의 중심이라는 심리적 개념인 Sidner(1983)의 포커스(focus)와 구분된다. 초점도 관심의 중심이긴 하지만 인지 상태에서 최근의 기억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포커스보다 더 좁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접근의 용이성'의 등급에 작용하는 주된 변이요소로 화자나 청자, 문장 혹은 담화화제, [인간] 혹은 [활성], [한정성]과 같은 '현저도(saliency)'와 잠재적 선행사와 대응사 간의 거리를 들고 있다.<sup>5)</sup> 그러나 실제 텍스트에서 특정 지시표현은 단순히 '접근의 용이성'의 등급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특정 지시표현은 현저도나 선행사와의 거리를 통해 예상되는 '접근의 용이성' 등급에 걸맞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본문의 예 7, 22, 23)

한편 지시표현 선택의 또 다른 예로 소유인칭대명사와 재귀대명사를 들 수 있다. 이 문제는 화자의 감정이입(empathy)과 관련되어 Kuno(1987)나 Yokoyama and Klenin(1978)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 그들에 의하면 1/2인칭에서는 인칭소유대명사를 통해서, 3인칭에서는 재귀대명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화자의 감정이입이 나타난다고 한다.<sup>6)</sup>

본고에서는 재귀대명사나 인칭소유대명사를 제외한 대응사 형태, 즉  $\emptyset$ , 비강세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한정명사구, 이름을 중심으로 논하되 '접근의 용이성'이나 '주어집성'으로 설명하기 힘든 용례들을 살펴보고, 주어인 맥락에서 특정 지시표현이 어떤 화용론적 기능을 담당하는지 규명하겠다.

## 2. 비강세 인칭대명사와 $\emptyset$

비강세 인칭대명사와  $\emptyset$ 는 항상 대응사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고 '주어집성의 위계'에 의해서건 '접근의 용이성'에 의해서건 최상위에 위치한 지시표현으로 간주된다.

5) 이에 비해 Ariel(1988)에서는 '접근의 용이성'의 결정 요소로 선행사와의 거리, 예상 선행사의 수효, 현저도(화제 여부), 텍스트 내의 경계(frame)의 역할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Ariel(1996)에서 '접근의 용이성'의 정도의 변이요소로는 현저도, 선행사와의 거리, 결집성(cohesion)의 정도가 제시되며 현저도가 높을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결집성이 높을수록 선행사의 대응사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더 높다고 한다.

6) 감정이입이란 화자가 특정 발화에서 누구의 편에서 기술을 하는가, 즉, 화자가 문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사건이나 상태에 참여자화됨을 뜻한다.(Kuno, 1987: 206) 감정이입 요소로 작용하는 [인간], [주어], [화자], [화제]등은 '접근의 용이성'의 현저도 결정요소와 상당히 일치한다.

2.1.  $\emptyset$ 

G. H. Z.(1993)는  $\emptyset$ 를 비강제 인칭대명사와 마찬가지로 [+초점]의 지시체만을 위한 지시표현으로 기술할 뿐  $\emptyset$ 와 인칭대명사의 선택요건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Ariel(1988 / 1996)은  $\emptyset$ 를 '접근의 용이성'의 정도에 있어 인칭대명사보다 상위에 위치한 지시표현으로 기술하여 비강제 인칭대명사와 차별화시켰다. 즉,  $\emptyset$ 는 선행사가 장애요소 없이 바로 앞에 있거나 지시체가 현저도가 높은 경우에 선택되는 지시표현으로 이해된다. 한편 Nichols(1985)는 선행사나 주어라는 통사적 관계 혹은 담화구조나 화자의 관점에 준해 현대 러시아어의 구어 이야기체에서  $\emptyset$ 의 용법을 연구한 바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emptyset$ 는 연속화제인 경우에 잘 나타난다.<sup>7)</sup>

Два дня Иван не находил себе места.  $\emptyset$  пробовал напиток, но ещё хуже стало ... противно.  $\emptyset$  бросил. На третий день  $\emptyset$  сел писать рассказ в районную газету.  
(Nichols, 1985: 173)

단 연속화제는 주로 주어로 나타나고 '도치주어(inverse subject)'와 같은 여격 주어로도 꽤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목적어는 타동 무인칭 동사와의 결합에서 드물게  $\emptyset$ 로 나타난다.

Сажку затрясло, но он собрал все силы и  $\emptyset$  хотел быть спокойным.  
(Nichols, 1985: 174)

2)  $\emptyset$ 는 선행사나 그 통사적 관계로 그 선호도를 설명할 수 있다. (a/b)에서 처럼 선행사가 주격이면 대용사는 주격인 경우에  $\emptyset$ 로 가장 잘 나타나고, 선행사가 여격인 경우에는  $\emptyset$ 나 혹은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c)에서 처럼 선행사가 여격이면 대용사는 그 격이 주격인 경우에도  $\emptyset$ 로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d)처럼 선행사가 직접목적어이면 대용사는 그 격이 주격인 경우에도 절대로  $\emptyset$ 로 나타나지 않는다.

7) 본고에서 화제란 담화화제(discourse topic)를 의미하고 테마란 문장화제(sentence topic)를 뜻한다.

a.  $\emptyset$  чуть не заплакал,  $\emptyset$  хотел как-нибудь думать и  $\emptyset$  не мог —  $\emptyset$  не думалось...

b. Иван остановил раскалённое перо,  $\emptyset$  встал,  $\emptyset$  походил по избе. Ему нравилось, как он пишет...

c. Ему нравилось идти в ней по улице, он гордился красивой женой.

d. Сашку затрясло, но он собрал все силы и  $\emptyset$  хотел быть спокойным.

(Nichols, 1985: 175)

3) 화자의 관점이 주어진 화제에 계속 맞춰지는 경우에는 구분관계에 무관하게  $\emptyset$ 로 나타날 수 있다.

Слаб он был давно уж, с месяц (...). Не то чтоб страшно сделалось  $\emptyset$ , а удивительно: такой слабости никогда не было  $\emptyset$ . То казалось  $\emptyset$ , что отнялись ноги  $\emptyset$ ... Пошевелит  $\emptyset$  пальцами — нет, шевелятся. То начинала терпеть левая рука,  $\emptyset$  шевелил ею — вроде ничего. (Nichols, 1985: 175)

4) 제시문(presentative sentence) 주어의 대용사는  $\emptyset$ 로 나타날 수 없다.<sup>8)</sup>

На скамейке, у ворот, сидел старик. Он такой же усталый, тусклый, как этот тёплый день к вечеру. (Nichols, 1985: 176)

연속화제는 의당 [+초집]이고 '접근의 용이성'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Nichols (1985)의 주장은 결국  $\emptyset$ 가 '접근의 용이성'의 최상위에 위치한 대용사 표현이라는 Ariel(1988)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래의 예는 주목할 만하다.

(1) Нина: А ты забываешь о моём женихе...(начинает уборку.) Легко тебе быть заботливым. Со стороны... Никто его здесь не бросает,  $\emptyset$  придет к нам на свадьбу,  $\emptyset$  помогать ему будем, письма писать, а впоследствии... Мы оставим его здесь только на первое время. На год, ну на полтора. (Вампилов, 1984: 34)

8) 이는 제시문이 담화에서 담당하는 기능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제시문은 어디까지나 이전의 화제와는 다른 화제를 도입하는 기능을 담당하므로 화제의 연결정보나 화제의 이동을 알리는 표지로 기능한다.

위의 예에서 첫 번째  $\emptyset$ 는 *Нина*의 아버지를 지시하며 ‘его’의 대용사다. 이에 비해 두 번째  $\emptyset$ 는 선행사가 ‘нам’으로 *Нина*와 그녀의 약혼자를 지시한다. 전자의 경우에  $\emptyset$ 는 비록 선행사의 격이 대격이어서  $\emptyset$ 가 대용사 형태로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것이 연결화제이기 때문에 선행사의 구문관계와 무관하게  $\emptyset$ 가 대용사 형태로 올 수 있고 그 뒤에 ‘нам’이라는 장애요소가 오기 때문에 그 대용사 형태로  $\emptyset$ 대신 *ему*가 사용된 것으로 설명된다. 후자의 경우에  $\emptyset$ 는 선행사가 주격이 아니고, 연속화제도 아니기 때문에 대용사 형태로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Нина*가 화자이기 때문에 *Нина*와 그 약혼자도 ‘접근의 용이성’이 높고 이런 이유로 대용사 형태로  $\emptyset$ 가 올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결론적으로  $\emptyset$ 는 선행사나 그 통사적 관계뿐만 아니라 화제의 연속성 혹은 ‘접근의 용이성’으로 대용사로의 적격 여부가 가려진다.

## 2.2. 비강세 인칭대명사

G. H. Z.(1993)는 특정 지시체가 청자의 마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 화자/필자의 판단에 중점을 두는데 이러한 방식대로라면 지시 표현의 선택을 지배하는 원칙은 특정 개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비강세 인칭대명사는 그 개체가 [+인간]인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다르게 나타난다. 즉, 동일한 개체라도 각기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담화에 의해, 혹은 동일 담화 내에서라도 다른 관점에 의해 각기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Fraurud, 1996)<sup>9)</sup> 아래의 예는 동일인을 지칭하는데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대화참여자 간에 표현방식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아들 *Васенька*는 두 명의 방문자를 맞이하면서 그 중 한 사람인 *Бусыгин*이 아버지 *Сарафанов*의 또 다른 아들임을 알게 된다. 그런 이유로 *Васенька*는 *Бусыгин*을 막연한 ‘손님’이라는 표현대신에 ‘твоя сын’ 혹은 나중에는 ‘Он’으로 표현한다. 이에 비해 *Сарафанов*는 아직 그를 만나보지도 못했고 자신에게 다른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Бусыгин*을 그저 ‘손님’

9) Fraurud(1996)는 지시체 그 자체의 내적 자질 즉 ‘인식 존재론(cognitive ontology)’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지시 표현의 선택의 문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한 예로 한 동일 인물이 Thorstein Fretheim, ‘the husband of Gine’ 혹은 ‘a Norwegian linguist’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인식 존재론은 해당 개체의 내적 자질과 당장의 시각(temporary perspective)간의 관계를 감안한 것으로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소 다르다.

으로만 인정하여 Васенька가 'Он'이나  $\emptyset$ 로 지칭하는데도 'кто-нибудь'로 바꾸어 지칭하여 응답한다. 즉 Бусыгин의 존재는 아들과 아버지에게 각기 다르게 인식되어 아들에게는 한 '개인(individual)'으로, 아버지에게는 '일례(instance)'로 받아들여진다.<sup>10)</sup>

(2) Сарафанов: Васенька, гость и ещё один — это два гостя. Кто к нам пришёл, говори толком.

Васенька: Твой сын. Твой старший сын.

Сарафанов(не сразу): Ты сказал... Чей сын?

Васенька: Твой. Да ты не волнуйся... Я, например, всё это понимаю, не осуждаю и даже не удивляюсь. Я ничему не удивляюсь...

Сарафанов(не сразу): И такие-то шутку у вас в ходу? И они вам нравятся?

Васенька: Какие шутки? Он на кухне. Ужинает.

Сарафанов(внимательно смотрит на Васеньку): Кто-нибудь там ужинает.  
(Вампилов, 1984: 15)

Fraurud(1996)는 사과나 사람과 같이 내적 자질이 다른 개체는 담화에서 다르게 취급되어, 지시체가 [-인간]이면 [+인간]인 경우와 달리 바로 앞에 선행사를 반드시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된 예로 다음을 보자.

(3) Тогда же, в тридцать восьмом, арестовали мужа её знакомой. Жена его осталась в безвыходном положении — одна, без работы, с двумя маленькими детьми. Много ли навлоось в то время людей, которые осмелились помочь, протянуть руку? Она осмелась. Более того, совершила невероятное — уговорила руководителя организации, где работала сама, взять подругу на работу.  
(Tall & Vlasikova, 1996: 12)

(4) Блейк: Это, кажется, новое здание университета?

Русин: Да, оно построено в тысяча девятьсот пятьдесят третьем году.  
(Шукин, 1988: 33)

10) 인식론적 존재론을 단순화시키면 개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Fraurud, 1996: 71)

- a. 개인(individual) : 고유명사처럼 직접적으로 정체 확인될 수 있는 유형.
- b. 기능(functional) : 'the nose'처럼 다른 개체에 관계를 맺고 있는 유형.
- c. 일례(instance) : 'a glass of wine'처럼 그 유형이 정체 확인될 수 있는 유형.

(5) Русин: ... Едем дальше. Это — площадь Пушкина. Видите памятник Пушкину? Он создан в тысяча восемьдесятом году скульптором Опекушиным на народные деньги. За ним — кинотеатр «Россия». <중략> Мы с вами там будем.

Блейк: Памятник мне нравится. (Шукин, 1988: 32)

(6) Да... Так вот. Сейчас, когда я возвращался домой, я размышлял о жизни. Кто что ни говори, а жизнь всегда умнее всех нас, живущих и мудрецов. Да-да, жизнь справедлива и милосердна. Героев она заставляет усомниться, а тех, кто сделал мало, и даже тех, кто ничего не сделал, но прожил с чистым сердцем, она всегда утешит. (Вампилов, 1984: 50)

(4)의 'оно'와 (5)의 'Памятник'은 그 지시체가 모두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거나 'оно'는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 비해 'Памятник'은 그 선행사가 선행 발화에 있지 않음으로써 거리가 멀어 비교적 낮은 '접근의 용이성'을 보여 인칭대명사로 나타나지 않고 명사구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3)의 'она'는 화자의 어머니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음에도 인칭대명사로 나타나 Fraurud(1996)의 '대명사화 경향(pronominalization propensity)'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6)의 'она'는 분명 선행사가 선행발화에 나타나고 선행사의 모호함을 야기할 위험도 없고 선행사가 주격이며 연속화제이어서 높은 '접근의 용이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동일 명사인 'жизнь'이 두 번 반복된 후에야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이는데, 이는 그 지시체가 [-인간]인 것과 유관성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인간] 지시체의 경우는 반드시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어야 인칭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인간] 지시체는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없어도 인칭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어집성의 위계'나 '접근의 용이성'에 있어 그 지시표현으로 의당 비강세 인칭대명사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명사구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7) Рудик, застенчивый мальчик — немец из детского интерната на Урале, где в годы войны она была директором. Одинокий, отчаявшийся, никому, казалось не нужный. Родители в концлагере, он попал к ней в интернат. Ребята его били, дразнили — «фашист недобитый». Немало сил ей пришлось потратить, чтобы убедить ребят, что Рудик не фашист, что он такой же, как и они. Она брала мальчика на выходные к себе домой, она ставила



заплаты на его прохудившуюся курточку, делилась последним куском.

(Tall & Vlasikova, 1996: 10-11)

위의 예에서 Рудик은 화자의 어머니에 대한 회상에서 등장하는 인물로 [+초점]이자 포커스로 '접근의 용이성'이 높고 선행사가 모호할 가능성도 엿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Рудик의 대용사 형태는 인칭대명사일 것으로 쉽게 예상된다. 그러나 유독 두 경우에는 Рудик의 대용사로 'Рудик'과 'мальчика'가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Рудик'의 경우는 그 선행사와의 사이에 다른 지시표현 'ей', 'ребят'이 끼여들어 선행사와의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기 때문이거나 혹은 마치 직접인용의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мальчика'는 화자인 딸이 Рудик을 처음 보던 순간의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이건 아니면 그를 불청객으로 여겼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이건 화자가 Рудик의 편에서 기술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결국 경우에 따라 [+인간]이나 연속화제로 높은 현저도를 보이는 지시체라 하더라도 인칭대명사와의 다른 유표적 표현으로 지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알 수 있다.

### 3. 지시대명사 / 지시대명사 + 명사

G. H. Z.(1993: 292)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초점]의 지시표현으로 선호되는 것은 비강세 인칭대명사, 명사구,  $\emptyset$ , 지시대명사나 지시대명사 + 명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활성화], [+친숙함]의 지시표현으로는 명사구가 지시대명사나 지시대명사 + 명사에 비해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그들에 의하면 러시아어에서 [+초점]의 지시표현이  $\emptyset$ 나 비강세 인칭대명사인 경우는 70%에 달하고, 지시대명사나 지시대명사 + 명사가 그 지시표현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드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Grice(1975)의 양의 격률(Maxim of Quantity)과 '주어 중심의 위계'의 상호작용의 결과인 회화추의(conversational implicature)와 연관되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지시대명사는 비강세 인칭대명사나  $\emptyset$ 에 비해 덜 제한적인 인지 상태를 선호한다. 그리고 [+초점]이라면 의당 [+활성화]이되 그 역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로 지시대명사는 비강세 인칭대명사에 비해 정보성이 약하다. 한편 지시대명사는 최소한 [+친숙함]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유일 정체확인가능성만을 요하는 정관사나 비한정구(zero determiner)보다는 더 제한적인 인지 상태를 신호한다. 그리고 [+친숙함]은 의당 [+유일 정체확인가능성]이어야 하되 그 역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지시대명사는 정관사나 비한정구보다는 그 정보성이 더 강하다. 결국  $\emptyset$ 나 비강세 인칭대명사에는 제 1 양의 격률(앞으로 Q1) 회화추의가 적용되고 한정 명사구에는 제 2 양의 격률(앞으로 Q2) 회화추의가 적용되므로 지시대명사는 상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G. H. Z., 1993: 303)<sup>11)</sup>

또한 그들의 자료에서 это나 'этот + 명사'는 드물게라도 나타나는데 비해 'то'나 'тот - 명사'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Ariel(1996 / 1988)의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accessibility marking scale)'에 따르면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 + 명사는  $\emptyset$ 나 비강세 인칭대명사에 비해서는 '접근의 용이성'이 작고, 일반명사나 고유명사에 비해서는 '접근의 용이성'이 커서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에 있어 중간위치에 있다. 그러나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의 중간에 속하는 표현들은 그 사용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

$\emptyset$  < 재귀대명사 < 일치표지(agreement markers) < 접사적 대명사 < 비강세 인칭대명사 < 강세 인칭대명사 < 강세 대명사 + 몸짓 < 근거리 지시대명사 (+ 명사) < 원거리 지시대명사 (+ 명사) < 근거리 지시대명사 (+ 명사) + 수식어 < 원거리 지시대명사 (+ 명사) + 수식어 < 성 < 이름(first name) < 짧은 한정 명사구 < 긴 한정 명사구 < 이름과 성 < 이름과 성 + 수식어

### 3.1. 지시대명사 это/то

러시아어에서 это/то는 "То было вчера, а это сегодня."에서와 같이 나란히

11) Grice(1975)의 Q1 "Make your contribution as informative as required (for the current purpose of the exchange)."에 의거하면 더 약한, 함의되는(entailed) 형태는 대화에서 더 강한, 함의하는(entailing) 형태가 나타나지 않음을 함축한다. 한편 Grice(1975)의 Q2 "Do not make your contribution more informative than is required."에 근거하면 더 약한, 함의되는 형태가 더 강한, 함의하는 형태를 함축한다.

사용되는 경우에만 근거리, 원거리 의미로 구분될 뿐이다. *это*와 *то*가 대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이들은 그 선행사가 바로 앞 발화에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지시체의 성, 수가 특정화되지 않은 무표적 형태로서 사용된다.<sup>12)</sup>

(8) а. Б: Потом целый ряд было... и... э... а... было в еде особенност(ей?) / (перебивая себя, уточняет мысль: не особенностей еды, а особенностей названий) названий // "форшмак!" "форшмак" / э... армериттер / вот / (маленькая пауза) такое блюдо было / это от немцев //

А: "Армериттер"? Это я даже не знаю //

Б: А-а! Это очень вкусно/ А. Да? Б. это Вам надо ка хозяйке.

(Земская, 1978: 43-44)

в. Б: Бедный рыцарь /

А: Да! (смеётся)...

Б: значит / и благородно /

А: Да-да-да //

Б: и вместе с тем дешево и быстро //

(Земская, 1978: 44)

단 *это*는 원래의 근거리의미에 무표적인 지시대명사 역할을 하여 *то*에 비해 훨씬 더 자주 사용된다고 한다.(G. H. Z., 1993: 287) 아래의 예는 선행사가 문장 전체로 대용사로 *этим*이 선호된다.

(9) А: Мои рассказы лучше чем его рассказы.

Б: Я с этим согласен.

?Б: Я с тем согласен.

(G. H. Z., 1993: 287)

### 3.2. 지시대명사 *этот/тот* + 명사

*этот/тот*는 각각 화자를 기점으로 한 근거리/원거리의 지시체를 지시하는

12) Channon(1983)에 의하면 러시아어와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한정성, 분리성, 성, 수(활성)에 준하여 특정화되고 영어의 *that*는 러시아어의 *это*와 마찬가지로 대용사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성, 분리성, 수에서 특정화되지 않은 일종의 무표적 형태의 대명사로 선택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Серёжа заказал шпорты, борщ, свинную отбивную, и чай, я тоже это (\*его, \*её, \*их, \*ø) заказал.

Serezha ordered sprats, borsch, a pork chop, and tea, and I ordered that (\*it, \*them, \*one, \*ones, \*some), too. (Channon, 1983: 60)

대명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это/то와 마찬가지로 этот/тот가 나란히 와서 원근의 의미로 명확한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этот가 тот를 대신한다. Г. Р. Я.(1960: 396)에 따르면 этот는 (10a)에서 보듯이 직접 가까이 있거나 방금 상기된 대상을 지시하기도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한정된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тот는 (10b)에서 보듯이 멀리 있거나 전에 상기된 적이 있는 대상을 지시하거나, 그 구체적 의미가 뒤따르는 수식전에 의해 밝혀지는 대상을 지시한다.

(10) a. Ему налози эти постоянные поездки.

Надо поискать другую должность, а эта не по мне.

b. В тот год осенняя погода стояла долго на дворе.

Сражение выигрывает тот, кто твердо решил его выиграть.

G. H. Z.(1993)는 아래의 예를 들어 этот/тот는 화자의 이웃이 개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청자가 알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즉 그 지시체의 인지상태가 [+친숙함]인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만 그 용법이 적절하다고 지적한다.

(11) Эта собака у соседа мне всю ночь не давала спать.

Та собака у соседа мне всю ночь не давала спать.

(G. H. Z., 1993: 286)

이 점에서 этот는 다른 언어의 지시사와 대조를 보인다. 즉 러시아어와 달리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나 일본어 등에서 근거리 지시사(zhe, this, este, kore)는 그 지시체가 [+활성화]일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원거리 지시사와 구분된다. 러시아어에서 этот는 그 지시체가 [+친숙함]일 것을 요구할 뿐이기 때문에, 아래의 예 (a)에서 этот кот는 Grice의 Q2 회화추위에 의거하여 친숙한 지시체의 오래된 기억을 찾아내도록 청자에게 보내는 사인으로 작용한다. 마찬가지로 (b)에서 Бусыгин은 Сарафанов의 아들을 염두에 두고 'сын'의 대용사로 'с ним'을 취하지만 상대방인 Сильба가 그 지시체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반문한다. 그러자 Бусыгин은 일반명사구 'с сыночком'을 통해 그 지시체를 상술한다. 그러나 Сильба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어느 아들?' 하고 재차 반문하고 Бусыгин이 다시 'с этим'을 통해서 이전에 이미 그 아들이 언급된 적이 있음을, 즉, 그 지시체가 [+친숙함]임을 상대방에게 알림으로써 기

역을 되살리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С этим'은 여기서 '아까 그'로 해석된다.

(12) a. Этот кот потерял всякую совесть. Кот-бродяга и бандит.

(G. H. Z., 1993: 301)

b. Бусыгин: Ему шестьдесят, не меньше.

Сильба: Молодец.

Бусыгин: Так-так... Любопытно... Остался у него кто-нибудь дома? ... Женя, во всяком случае, не должно быть...

Сильба: Вроде там парень ещё маячил.

Бусыгин: Парень говоришь?

Сильба: С виду вроде молоденький.

Бусыгин: Сын...

Сильба: Я думаю, у него их много.

Бусыгин: Может быть, может быть... Знаешь что? Пошли-ка с ним познакомимся.

Сильба: С кем?

Бусыгин: Да вот с сынчком?

Сильба: С каким сынчком?

Бусыгин: С этим. С сыном Сарфанова. Андрея Григорьевича.

(Вампилов, 1984: 10)

한편 아래의 этот каньон은 C가 남편과 H를 비롯한 친구들에게 Крым에 갔다 온 여행담을 하면서 그 다음 여정인 협곡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나타난다. 그런데 C의 남편은 예전에 이미 여행담을 간단하게 들은 바가 있어 그 협곡에 대해 이미 알고 있지만 현재는 맥락에서 처음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나중에 H이 C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하자 C는 그 협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덧붙인다. 따라서 этот는 Grice의 Q1 회화 추의에 의거하여 그 지시체가 [-활성화]임을 함축한다.

(13) C: вот / а пот... сошли мы на остановке / которая называлась / сорок-второй километр //

H: Почти как в Москве // Да (смеются)?

C: Угу // (пауза) Сошли / и уже / уже теперь мы не по дороге / а спустились... в этот каньон //

H: (передразнивая) В этот / каньон //

C: Там называется Большой каньон // Но мы не знали вообще что это такое / может быть это дальше там осо... отрезок только пути называ-

ется Большой каньон / или всё это Большой каньон //

(Земская, 1978: 89)

한편 Гладров(1992)에 의하면 러시아어에서 지시대명사 + 명사의 전형적인 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러시아어에는 этот가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바로 그 대상이 반복되어 나타나되 다른 시/공간의 단면(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временный срез)에 속한 경우로 다음과 같은 예가 제시된다.

(14) За углом Петровкин увидел небольшой книжный магазин. Магазин был закрыт на ремонт. Жители города очень любили этот магазин.

(Гладров, 1992: 249)

그런데 다른 시/공간의 단면에 속한 지시체를 나타낸다고는 곧 그 지시체가 마치 [+활성화]가 아닌 것처럼 인식함을 의미하고 [-활성화]를 회화추의할 수 있는 этот가 바로 이러한 의미전달에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지시대명사 + 명사는 어순으로 한정성을 나타내기 힘든 경우들에 한해서 한정성의 표지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된다. 러시아어에서 한정성은 다음과 같은 표현수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1)어순과 구절 억양(phrase intonation)

문장 맨 끝에 오면서 구절 강세를 가지면 비한정성을 나타내고 문두에 오면 한정성을 나타낸다.

За столом сидел старик с закрытыми глазами. Было уже около полуночи. Старик молчал.

2)목적어에서의 대격/생격의 선택

Он написал отцу, что матери плохо живётся в Н., она болеет, устала, и чтобы отец прислал ей вызов и денег на дорогу. Деньги она отдаст, вернувшись в Ленинград и продав что-нибудь из мебели.

3)부정 맥락에서 보어의 격의 선택(대격/생격)

Я не читал стихов.

Письмо я не писал.

4)특정 문장에서 생격/주격의 선택

Птиц больше не появлялось.

Птицы больше не появились.

5) 직접목적어를 갖는 문장에서 상의 선택

비한정 목적어는 자주 완료상 동사와 한정 목적어는 불완료상 동사와 자주 공기한다.

Вчера Климонов получили от майора письмо.

Да, письмо он мне уже показывал.

6) 수량(количественность)

Вскоре появились гости... А потом кто-то затеял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в саду, и наш гость, высокий, с оленьими ногами, поспешил туда за новыми лаврами.

7) 부정(неопределённое) 대명사/지시대명사 + 명사<sup>13)</sup>

Я просидела напрасно до самой ночи и пошла спать к одной девушке, которая возила почту, и эта девушка объяснила, что я пошла не в ту сторону и что дорога идёт там, где телеграфные столбы.

(Гладров, 1992: 242-244)

지시대명사 + 명사가 한정성의 표지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아직 형태상으로 정관사가 발달되지 않은 슬라브 제어에서 지시사가 한정성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된 예들을 발견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Naylor(1983: 209)의 지적으로도 뒷받침된다.<sup>14)</sup>

한편 этот + 명사가 один, какой-то, какой-нибудь, кое-какой, некий, не-который 등의 '부정대명사 + 명사'의 대응사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은 этот가 포커스의 이동을 알리는 표지로 작용함을 반증하고 이런 점에서 영어의 this와 비견된다.<sup>15)</sup> 이는 '부정대명사 + 명사'가 전형적으로 새로운 지시체를 도입하고, этот가 원래 근거리 지시사여서 이전에는 화자의 관심권에 멀리 있던 특정 지시체가 이제는 화자의 관심권 중심에 근접함을 자연스럽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этот가 포커스의 이동을 나타내는 예들을 보도

13) 단 이처럼 처음 소개되는 명사가 부정대명사로 나타나고 그 대응사가 지시대명사 + 명사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 규칙성을 갖는다고 보기 힘들다.(Гладров, 1992: 244)

14) Naylor에 의하면 아래의 예에서 보듯이 동사의 명령형이 тема(тема)위치 즉 문두에 나타나거나 목적어가 [+한정성]인데 이미 테마위치에 다른 문장성분이 있는 경우에 지시대명사가 한정성의 표지로 작용한다.

Прочитайте эту книгу!

Я не нашёл это письмо.

(Naylor, 1983: 209, 210)

15) Sidner(1983)는 영어의 this가 that과 달리 포커스 이동을 알리는 표지로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록 하자. 아래의 예에서 этот + 명사의 선행사는 공통적으로 바로 앞 발화에서 나타나되 포커스로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 발화에서 그 대용사가 этот + 명사이고 테마위치를 차지함으로써 포커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15) а. На Ивану пахнуло влажным теплом, и, при свете углей, тлеющих в колонке, он разглядел большие корыта, висящие на стене, и ванну, всю в чёрных страшных пятнах от сбитой эмали. Так вот в этой ванне стояла галая гражданка, вся в мыле и с мочалкой в руках.

(Булгаков, 1980: 48)

б. Однако постепенно он успокоился, обмахнулся платком и, произнеся довольно бодро: «Ну-с, итак...» — повёл речь, прерванную питьем абрикосовой. Речь эта, как впоследствии узнали, шла об Иисусе Христе. Дело в том, что редактор заказал поэту для очередной книжки журнала большую антирелигиозную поэму. Эту поэму Иван Николаевич сочинил, и в очень короткий срок, но, к сожалению, ею редактора несколько не удовлетворил.

(Булгаков, 1980: 5)

단 한정성의 표지로 작용하여 포커스의 이동을 나타내기도 하는 этот + 명사는 공통적으로 선행 발화에 그 선행사가 오기 마련이고 따라서 [+활성화], [-초점]을 회화추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예들에서 этот + 명사는 Q1, Q2 회화추의에 의거하여 [+친숙함]이나 [-활성화]를 회화추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의 예들에서 этот + 명사는 마치 [+활성화]를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시표현인 것처럼 보인다. 이는 '주어집성의 위계'가 함의관계에 있는 주어집성의 세부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어 '단계성의 양 추의(scalar quantity implicature)'(Levinson, 1983: 132)를 내포한다. 따라서 특정 지시표현이 [-초점]을 회화추의한다면 당연히 [-활성화]를 동시에 회화추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этот + 명사는 그 지시체가 최소한 [+활성화]일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초점]을 회화추의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주어집성의 위계'에서 этот를 단순히 [+친숙함]을 필요조건으로 하는 지시표현으로 тот와 동일 선상에 두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에서 언급한대로 현대 러시아어에서 тот가 этот와 나란히 와서 원/근의 의미로 대조를 보이지 않는 한, этот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인다면 지시

16) 테마는 의당 화자의 관심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테마와 포커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대명사 + 명사의 지시표현에서 тот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тот는 этот와 마찬가지로 선행 발화에서 바로 언급된 지시체를 지시함으로써 텍스트의 결집성에 기여하기도 하지만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입여부를 나타내는 방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의 예는 тот가 화자로부터의 거리감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다.

(16) а. Иван ахнул, глянул вдаль и увидел ненавистного неизвестного. Тот был уже у выхода в Патриарший переулок, и притом не один. Более чем сомнительный регент успел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нему.

(Булгаков, 1980: 46)

б. Иван кивнулся вправо, и регент — тоже вправо! Иван влево —, и тот мерзавец туда же.

(Булгаков, 1980: 46)

с. Поведение кота настолько поразило Ивана, что он в неподвижности застыл у бакалейного магазина на углу и тут вторично, но гораздо сильнее, был поражен поведением кондукторши. Та лишь, только увидела кота, лезущего в трамвай, со злобой, от которой даже тряслась, закричала.

(Булгаков, 1980: 47)

위의 예는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1부 1장의 “погоня”에서 Иван이 악당들을 쫓는 대목으로 화자는 Иван의 편에 서서 악당들의 추적을 기술하고 있다. (16a), (16b)에서 수식어 ‘ненавистного’나 그 범주명 ‘мерзавец’를 통해 화자가 그 지시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아울러 тот를 통해 화자가 그것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тот가 원래 원거리의미의 지시대명사라는 것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즉, 화자나 필자가 특정 지시체에 대한 거리감을 보이고 싶을 때는 아무래도 원거리의미의 직시사 тот가 그 기능에 더 잘 부합하기 때문에 특히 이야기체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6a), (16c)를 통해 발견되는 흥미로운 사실은 тот + 명사(혹은 명사의 생략) 지시표현의 선행사가 나란히 앞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적절한 번역은 ‘바로 그’에 해당되고 тот의 용법은 한정성 표지로 사용된 этот에 비견된다. 아울러 이 예들에서 тот는 공통적으로 주격이라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тот의 용법이 대용사 형태 тот + 명사의 모든 경우들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러시아어 모국어사용자들이 тот를 비교적 문어체에서 잘 나타나는 것으로 응답한 사실을 감안하건대, тот가 대용사로 나타나는 경우는 다분히 맥락 의존

적이고 문체 의존적임을 알 수 있다. тот의 구어체의 예를 보도록 하자.

- (17) Д: Ну знаешь / как поступают? Боже мой //
- А: Приёмные экзамены?
- Г: Да //
- Д: Конечно / в институте // Это вот... ну просто жуткая нервотрепка / и потом после этих... аттестата сразу же те экзамены...
- А: По-моему дело не в приёмных экзаменах //
- Г: А в чём?
- Д: А что?
- А: Приёмные экзамены видите // Человек который хочет сдать / он сдаст эти экзамены / какие бы они ни были / (Земская, 1978: 212)

위의 예에서 '입학시험'은 그 대응사 형태가 A와 D의 발화에서 각각 'эти экзамены'와 'те экзамены'로 나타난다. A의 발화에서 '입학시험'의 대응사 형태는 ∅로 나타났다가 'эти экзамены'로 나타난다. 이때 эти는 [-활성화]나 [+친숙함]을 회화추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성의 지표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왜 여기서 하필이면 этот + 명사가 온 것인가? 이는 A의 발화에서 처음에는 '입학시험'이 화자의 포커스로 부각되고 그 다음에는 '시험응시자'가 테마주격으로 음으로써 '입학시험'이 잠시 뒷진으로 밀려난 것처럼 보이지만 этот + 명사의 대응사 형태를 통해서 '입학시험'이 재부각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D의 발화에서 '입학시험'은 졸업시험과 대조를 이루고 통상 졸업시험을 먼저 본 다음에 치르기 때문에 졸업시험은 этот + 명사로 '입학시험'은 тот + 명사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기서 тот은 화자가 '입학시험'에 대해 거리감을 표현하거나 그것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결국 этот나 тот가 대응사 형태로 오는 경우에 이들이 전달하는 바는 상당히 맥락의존적으로 원래의 직시사적 의미가 투영되어 포커스의 이동이나 화자로부터의 거리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활성화]나 [+친숙함]을 회화추의하여 텍스트의 결집성에 기여하기도 한다.

#### 4. 이름과 한정명사구

Ariel(1996)의 '접근의 용이성 표현·등급'에서 이름과 명사구는 '성 < 이름

< 한정어 < 성과 이름'의 순서로 나타난다. Nichols(1985)는 주로 이야기체의 구어자료에서 인칭대명사나 이름, 한정 명사구의 용법을 시각이나 이야기구조(narrative structure)와 관련하여 설명한다.

Nichols(1985)에 의하면 이름이나 한정 명사구는 (18a)처럼 주된 일화가 단절되고 난 후에 나타나거나, 혹은 (18b)처럼 그 지시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명사 대신 선택된다.

(18) а. Потом узнал Иван, как всё случилось. Приехало в село небольшое воинское подразделение с офицером — помочь смонтировать в совхозе электроподстанцию. Побыли-то всего с неделю!... Смонтировали и уехали. А офицер ещё и семью тут себе 'смонтировал'. Два дня Иван не находил себе место. (Nichols, 1985: 176)

б. К Насреддину в дом забрался вор. Он разостлал по полу своё ветхое одеяло, чтобы связать в узел вещи Насреддина, и ~~он~~ стал шарить по комнате, но так ничего ~~и~~ не нашёл. (Nichols, 1985: 174)

이름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관점이 화제임을 가정하거나, 화자의 감정이 입이 화제에 맞추어진 경우에 사용되고, 한정 명사구는 외적 관점이나 화자의 감정이입이 없음을 나타내는 경우에 사용된다.(Nichols, 1985) 특히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특정 개체의 정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확립하는 한 방식이다.(Fraurud, 1996)<sup>17)</sup> 한 예로 (19a), (19b)는 각기 동일 지시체에 대해 지시표현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19a)에서는 말이 이름으로 지칭되어 화자가 말의 편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해 (19b)는 노인이 이름으로 지칭되고 말이 일반명사로 지칭됨으로써 이번에는 화자가 노인의 편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7) Fraurud(1996)에 따르면 특정 개체의 범주는 그 범주의 전부나 부분이 고유명사로 칭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한 예로 사람, 소철, 때로는 동물이나 배는 이름을 부르지만 연필이나 포도주잔 혹은 사람들의 코와 같은 것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조그만 동물원에서 갓 태어난 새끼 곰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중 몇 마리가 동물원 직원에게 잡아먹힌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분노했고 그에 대한 이유 중 하나가 "How can you give someone a name and then eat them?"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고유명사로 [+인간] 개체를 소개한 경우에 뒤에 그 지시표현이 따라올 가능성은 커지고 아울러 대명사 대용사의 '접근의 용이성'도 증가한다고 한다.

(19) а. Свербега, несмотря на тяжесть воза, с тревожным ржанием бросилась по дороге, и старик еле успел прыгнуть на воз.

б. Торопливо вытаскаивая из-за ремня топор, Иван Тимофеевич видел, как один волк легко перемахнул через валежину, другой обогнал первого, и по насту они в четыре прыжка оказалась рядом. Лошадь понеслась вскач. “Только бы не лопнула завертка”, — мелькнула о в голове. Всё это произошло за несколько секунд и плохо запомнилось Ивану Тимофеевичу.

(Nichols, 1985: 179-180)

한편 러시아어의 이름의 다양한 표현 방식과 관련하여 애칭이든 본명이든 이름이나 이름 + 부칭은 화자의 감정이입이나 내적 관점을, 부칭은 화자의 감정이입과 연관될 수도 있으나 다분히 중립적이고 항상 외적 관점을 나타낸다.(Nichols, 1985: 182)<sup>18)</sup> 한 예로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1부 1장의 “Никогда не разговаривайте с неизвестными”과 “Погоня”에서 Иван의 호칭은 상당히 대조적이다. “Никогда не разговаривайте с неизвестными”의 경우에 Иван은 Берлиоз와 더불어 주요 등장인물 중의 한 명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Погоня”는 Иван이 나쁜 악당들을 뒤쫓는 이야기가 Иван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인지 “Погоня”에서 Иван은 총 50회에 걸쳐 이름으로 지칭되고 10회는 인칭대명사로, 6회에 걸쳐서는 поэт로 지칭된다. 특히 이름으로 지칭되는 경우에 14회는 ‘Иван Николаевич’로 나머지 36회는 ‘Иван’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Никогда не разговаривайте с неизвестными”에서 Иван은 주로 ‘поэт’, ‘Бездомный’ 혹은 ‘Иван Николаевич’로 지칭된다. 이 사실을 통해 어떤 이름을 선택하는가는 화자의 관점을 다분히 반영함을 알 수 있다.

Ariel에게 있어 한정 명사구는 ‘접근의 용이성 표현등급’의 하위에 위치하여 선행사와의 거리가 멀거나 현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20a)의 ‘Памятник’은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타나지 않고, 그 지시체가 불활성이며 연속적인 화제가 아니기 때문에 현저도가 낮아서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단 ‘Памятник’은 이미 이전 맥락에서 비강세 인칭대명사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활성]이 그리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0b)의 ‘Сады’는 그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음에도 연속화제가 아니고 조격 형태로 전치사구를 이루기 때문에 선택된 지시표현으로 설명된다.<sup>19)</sup>

18) 단 Nichols(1985)는 일반 명사구 중에서 старик과 старуха는 반드시 감정이입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명사구라고 한다.

19) 이와 같은 맥락에서 Halmari(1996)는 선행사의 문법역(grammatical role)과 대용사

(20) a. Русин: ... Едем дальше. Это — площадь Пушкина. Видите памятник Пушкину? Он создан в тысяча восемьдесятом году скульптором Опеку-  
винным на народные деньги. За ним — кинотеатр «Россия».

<중략>

Блейк: Памятник мне нравится. (Шукин, 1988: 32)

b. Русин: ... Позднее образовалась широкая улица с садами. Сады, как вы видите, не сохранились, а название осталось. А теперь сворачиваем на Комсомольский проспект. (Шукин, 1988: 33)

화자의 관점이나 감정이입과 관련된 한정명사구의 예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아래의 예에서 Бусыгин은 이전 발화에서 Нина의 약혼자를 인칭대명사 'с ним'으로, 혹은 Нина와 더불어 'вы'로 이미 지칭한 적이 있고 바로 앞의 Нина의 발화에서도 그 약혼자가 Нина와 더불어 인칭대명사 мы로 표현된다. 이를 감안하건대, Бусыгин의 발화에서 Нина의 약혼자는 인칭대명사로 지칭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용사 대신 'с твоим лётчиком'이라는 대용사가 오는데, 이는 화자인 Бусыгин이 Нина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약혼자에 대해 별 좋은 감정을 갖지 않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sup>20)</sup>

(21) Бусыгин: Где ты с ним встречаешься?

Нина: В центре, как обычно.

Бусыгин: Когда вы появиться?

Нина: Мы идём в кино. Здесь будем часов в восемь... Ну хочешь, пойдём вместе?

Бусыгин: Что я там буду делать?... Нет. Познакомимся с твоим

의 지시표현의 선택의 연관성을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주어 < 직접 목적어 < 간접 목적어 < 사격(obl.) < 생격 < 비교대상'의 순서대로 '접근의 용이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주로 핀란드 담화 데이터를 통해 보이고자 했다. 결국 이러한 주장은 Ariel의 현저도 결정 요소와 무관하지 않다.

- 20) [+인간] 개체가 범주명을 포함한 표현의 대용사형태를 취하는 경우는 특정 뉘앙스를 전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raurud(1996)에 따르면 영어에서 고유명사로 소개된 사람을 지시하는 뒤따르는 지시표현은 가장 빈번하게 대명사로 나타나고 범주명(human being, person, man, woman)을 포함하는 한정 명사구의 사용은 제한적이고 경우에 따라 경멸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조직, 위치, 동물이나 예술작품을 비롯한 비활성 개체의 뒤이은 지시표현은 일반적으로 그 이름의 반복이나 범주명을 포함하는 한정 명사구의 반복(Fido... the dog; NATO... the organization; Japan... the country)으로 나타난다.

лётчиком вечером.

Нина: Надеюсь, он тебе понравится. Он хороший, он так ко мне относится... Ты не думай, я и другим нравилась. Я сама его выбрала.

(Вампилов, 1984: 40)

그러나 이름이나 한정 명사구의 선택이 항상 화자의 관점, 이야기 구조 혹은 선행사와의 거리, 구문관계, 현저도로 다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예는 맥락을 통해 Нина가 이미 비강세 인칭대명사로 나타났는데, 갑자기 Нина의 나이를 묻는 대목에서 이름으로 지칭된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분명 Нина는 연속화제로 작용하고 있고 [+인간]이며 선행사의 격이 주격이어서 현저도가 높고 선행사와의 거리도 아주 가깝기 때문에 '접근의 용이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Нина가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의 하위에 있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그 발화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그 발화는 Нина의 나이를 묻는 것인데, 누군가의 나이를 모르고 묻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배경지식이 그만큼 부족함을, 즉, 해당 지시체의 '접근의 용이성'의 정도가 낮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22) Бусыгин: Значит, она выходит замуж... А за кого?

Сарафанов: Э, её будущий муж — лётчик, серьёзный человек. На днях заканчивает училище и уже назначен на Сахалин. Сегодня, кстати, она собирается меня с ним познакомить.

Бусыгин: Так... Сколько же Нине лет?<sup>21)</sup>

Сарафанов: Девятнадцать

Бусыгин: Да?

Сарафанов: А что такое? Ей и не могло быть больше. Но она серьёзная.  
(Вампилов, 1984: 25)

'접근의 용이성 표현등급'에서 예상되지 않는 지시형태가 나타나는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자. 아래의 예에서 Бусыгин의 어머니는 연속화제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실하고 문맥을 통해서 이미 비강세 인칭대명사로 나타나고 있어 그

21) 여기서 Бусыгин은 же를 통해 Нина의 나이를 상기시킴으로써 결혼하기에 적절하지 않음을 암시하는데 이는 뒤따르는 대화를 통해 입증된다. 즉 Нина의 아버지인 Сарафанов는 Бусыгин의 뜻을 알아채고는 Нина의 나이와 관계없이 결혼에 대해 진지함을 역설한다.

지시표현으로 인칭대명사가 예상되는데도 일반 명사구가 온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화자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얼마나 자긍심이나 존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부각시키려는 화자의 의도와 연관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그 앞에 소유인칭대명사 *моя*가 옴으로써 어머니에 대해 [-감성이입]의 관계임을 나타내어 마치 공식적인 진술을 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결국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에서 상위에 속하는 인칭대명사는 [+초점] 지시체의 무표적 지시표현이기 때문에 이러한 뉘앙스를 전달할 수 없지만 유표적 표현이라 할 수 있는 한정 명사구는 이런 선경화를 담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Сарофанов: Всего-то?... И что ... она не замужем?

Бусыгин: Нет-нет. Мы с ней вдвоём.

Сарофанов: Вот как?... А ведь она заслуживает всяческого счастья.

Бусыгин: Моя мать на свою жизнь не жалуется. Она гордая женщина.  
(Вампилов, 1984: 24)

이름과 명사구는 Ariel의 '접근의 용이성 표현 등급'에 따르면 최하위의 '접근의 용이성'을 보이는 대상을 지칭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로 이들은 연속 화제의 지시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초점] 대상을 지시하기도 한다. 특히 [+초점] 대상을 지시하는 경우에 이들은 화자의 감정이입이나 발화자체의 특성 혹은 단순히 표현의 두드러짐성을 통한 강조효과의 유표적 지시표현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름은 그 표현양식에 따라서 화자가 누구의 관점을 취하고 있는가를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맺음말

지시표현과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G. H. Z.(1993)의 '주어집성의 위계'나 Ariel(1988 / 1996)의 '접근의 용이성 표현등급'은 선행사와의 거리나 현저도 혹은 양의 격률에 의한 회화추의 등에 의거해 러시아어의 다양한 지시표현의 용례들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준은 그 지시체가 [+초점]으로 다양한 대응사의 형태가 가능한 맥락에서 특정 지시표현이 선택되어 사용되는 경우나 '접근의 용이성 표현등급'에서 중간에 위치한 다양한 지시표현

들 간의 선택을 하는 경우에 적절한 근거를 제시해주지 못했다. 결국 지시표현 선택의 문제는 다른 화용론적 요소, 즉, 화제의 연속성이나 포커스의 이동 혹은 발화 자체의 성격 혹은 화자의 감정이입 여부나, 진경화로 설명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시체의 인지상태나 '접근의 용이성' 외에 앞에서는 화용론적 요소를 통해  $\emptyset$ , 비강제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명사구의 용법은 다음과 같이 규명될 수 있다.

$\emptyset$ 는 현저도가 높고 선행사가 바로 앞에 있어 그 지시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할뿐만 아니라 화제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대용사 형태이다. 비강제 인칭대명사는 [+초접]의 무표적 지시표현으로 화제의 연속성에 무표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대용사적 용법의 지시대명사 중에서 это, то는 선행사가 바로 앞 발화에 있어야 하고 지시체의 성, 수에 부표적인 형태로 나타나며 это가 상대적으로 선호된다. этот은 [+친숙함]을 회화주의하여 텍스트의 결집성에 기여하거나, [-활성화]를 회화주의하여 그 지시대상이 엄밀한 의미에서 선행사와 동일하다기보다는 다른 시-공간의 단편에 속한 대상임을 나타내거나, 혹은 한성성의 표지로 작용하여 포커스의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 тот은 대용사로서 화자가 그 지시체에 감정이입을 하지 않음을 나타내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단 이러한 용례는 문체나 맥락에 의존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예들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직시사로서의 원래 의미와 간접적인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름이나 명사구는 '접근의 용이성'이나 인지상태로 그 용법이 설명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들은 화자의 관전을 나타내거나 혹은 화자의 감정이입이나 두드러짐성을 통한 강조를 나타내는 유표적 지시표현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다수의 지시표현이 가능할 수 있는 맥락에서 특정 지시표현이 대용사로 사용되는 것과 관련된 화용론적 요소들을 규명하고자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대용사의 유표적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의미들을 소개하는데 그쳤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시대명사 этот, тот이 대용사로서 갖는 특정 의미는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고, 러시아어에 적절한 지시체의 인지상태와 지시표현간의 상관관계를 этот의 위상과 관련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명자(1998) "현대러시아어의 테마주격구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테마주격의 의미론적 고찰", 『한국러시아문학연구논집』, 제 4집, 247-268쪽.
-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1960)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Г. Р. Я.)*, том 2, М.
- Арутюнова, Н. Д.(1998) *Язык и мир человека*, М., Языки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 Булгаков, М.(1980) *Мастер и маргарита*, Ardis, Ann Arbor.
- Вампилов, Александр(1984) *Старший сын*, Перечитывается по изданию: А. Вампилов, *Избранное*, М., Искусство.
- Гладров, В.(1992) "Семантика и выражение определенности/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Теория функциональной грамматики: Субъектность. Объектность.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перспектива высказывания. Определенность/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ь*, СПб., Наука, с. 232-265.
- Земская, Е. А., Капанадзе, Л. А.(1978) *Русская разговорная речь*, М., Наука.
- Шукин, А. Н.(1979) *Русский язык в диалогах*, М., Русский язык.
- Ariel, Mira(1988) "Referring and Accessibility", *Journal of Linguistics*, vol. 24, pp. 65-87.
- \_\_\_\_\_ (1996) "Referring Expressions and the +/- Coreference Distinction", in Thorstein Fretheim & Jeanette K. Gundel(eds.)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Chafe, Wallace L.(1976) "Givenness, Contrastiveness, Definiteness, Subjects, Topics, and Point of View", in N. Li. Charles(ed.) *Subject and Topic*, N. Y., Academic Press.
- Channon, Robert(1982) "On the English Pronoun *ø*", *Chicago Linguistic Society: Papers from the Eighteenth Regional Meeting*, Vol. 18, pp. 61-71.
- \_\_\_\_\_ (1983) "A Comparative Sketch of Certain Anaphoric Processes in Russian and English",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 1, Columbus, Slavica.
- Chesterman, Andrew(1991) *On Definit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Grice, H. Paul(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P. Cole &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N. Y., Academic Press.
- Gundel, Jeanette, Hedberg, Nancy & Zacharski, Ron(1993) "Cognitive Status and the Form of Referring Expressions in Discourse", *Language*, Vol. 69, pp. 274-307.
- Halliday, M. A. K.(1967) "Notes on Transitivity and Theme in English", *Journal of Linguistics*, Vol. 3, pp. 199-244.
- Halliday, M. A. K. & Hasan, Ruqaiya(1976) *Cohesion in English*, London: N. Y., Longman.
- Halmari, Helena(1998) "On Accessibility and Coreference", in Thorstein Fretheim & Jeanette K. Gundel(eds.) *Reference and Referent Accessibility*,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Kuno, Susumo(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uno, Susumo & Kaburaki, Etsuko(1975) "Empathy and Syntax", in Susumo Kuno(ed.) *Harvard Studies in Syntax and Semantics*, Vol. 1,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 Levinson, Stephen 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87) "Pragmatics and the Grammar of Anaphora: a Partial Pragmatic Reduction of Binding and Control Phenomena", *Journal of Linguistics*, Vol. 23, pp. 379-434.
- \_\_\_\_\_ (1991) "Pragmatic Reduction of the Binding Conditions Revisited", *Journal of Linguistics*, Vol. 27, pp. 107-161.
- Lyons, John(1977) *Semantics*, vol. 1,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Naylor, Kenneth E.(1983) "On Expressing 'Definiteness' in Slavic Language and English", *American Contributions to the 9th International Congress of Slavists*, Vol. 1, Columbus, Slavica.
- Nichols, Johanna(1985) "The Grammatical Marking of Theme in Literary Russian", in Michael Flier & R. D. Brecht(eds.) *Issues in Russian Morphosyntax*, Columbus, Slavica.
- Prince, E. F.(1979) "On the Given/New Distinction",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 267-279
- \_\_\_\_\_ (1981) "Toward a Taxonomy of Given-New Information", in

- Peter Cole(ed.) *Radical Pragmatics*, N. Y., Academic Press.
- Reinhart, Tanya(1983) *Anaphora and semantic interpretation*,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 Sidner, C. L.(1981) "Focusing for Interpretation of Pronouns",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 7, No. 4, pp. 217-231.
- \_\_\_\_\_ (1983) "Focusing in the Comprehension of Definite Anaphora", in Michael Brady & Robert C. Berwick(eds.) *Computational Models of Discours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Tall, Emily & Vlasikova, Valentina(1996) *Let's Talk About Life!*, N. Y., John Wiley & Sons Inc.
- Yokoyama, Olga T. & Klenin, Emily(1978) "The Semantics of 'Optional' Rules: Russian Personal and Reflexive Possessives", in Ladislav Matejka(ed.) *Sound, Sign and Meaning. Quinquagenary of the Prague Linguistic Circle*, Vol. 6, Ann Arbor.

## Резюме

**Употребление анафорической референции**

Ким Мён За

В современном литератур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идентифицирующие слова" употребляются как анафорические референции. Употребление анафорической референции является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непрозрачным, так как нередко форма анафорической референции оказывается неединственной. Критерием выбора подходящей формы анафорической референции представляются 'иерархия данности' (Gundel, Hedberg & Zacharski, 1993) и 'масштаб обозначающий доступность' (Ariel, 1988 / 1996). Но даже этим теориям не удаётся объяснить выбора подходящей формы референции особенно в таком случае, когда референт оказывается центром внимания говорящего (фокусом), или когда его доступность не является крайняя (ни максимальная, ни минимальна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еобходимо выяснить другие факторы, относящиеся к употреблению референции, и в этой работе я придаю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на внелингвистические факторы, то есть, контекст, ситуацию, и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к сообщению или к слушающему.

Неударённые личные местоимения неограниченно употребляются тогда, когда данный референт является центром внимания говорящего. Анафорическое указательное местоимение 'этот' отмечает или тот же референт в другом пространственно-временном срезе, или перемену фокуса. Другое указательное местоимение 'тот', в качестве анафорического выражения, намекает на отдалённое, или даже отриц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говорящего к данному предмету, или к всему высказыванию. Употребление имён (собственных или нари-

цательных) во многом случае объясняется не познавательным статусом или доступностью реферанта, а отношением говорящего к данному предмету или к всему высказыванию.